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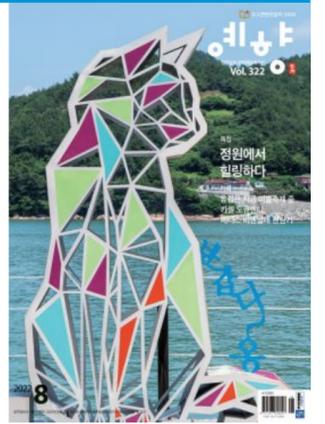
광주문예회관, 올 하반기 광주시립예술단 프로그램 공개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8월호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공연 모습.

연남



아름다운 우리고장 '정원에서 힐링하다' 전 세계 이목 집중 '유럽은 미술축제 중'

코로나 19와 미세먼지 등으로 피로해진 심신을 치유하고자 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들고 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정원은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은 8월호 특집 '정원에서 힐링하다'를 통해 독자들에게 정원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가 정원을 비롯해 옥상 정원, 한평 정원까지 다양한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가꾼 민간정원은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담양 소재원 등 전통정원은 물론 전남도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우리고장 아름다운 정원을 소개한다. '정원'의 주인공은 제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문태준 시인이다. 시인은 2년 전 오랜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의 고향인 제주도 애월읍 장전리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밭담을 새로 쌓고 꽃과 나무를 심었다. 흙과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동안 생생한 시어(詩語)들이 찾아왔다.

여름 기획 '유럽은 지금 미술축제 중'은 미술 애호가들을 위해 준비했다. 올여름 전 세계의 이목이 유럽의 미술계에 쏠리고 있다. 1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니스 비엔날레와 5년 주기의 카셀 도큐멘타, 세계 최대의 미술마켓인 스위스 아트페일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축제를 개최하는 도시들은 전 세계에서 밀려든 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유럽 미술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동시 4월호에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

한 아시아 최고의 미술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도 들어본다.

낮선 곳으로의 여행은 언제나 설렌다. 최근 2년간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터라, 그 설레임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져간다. 호남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여행'으로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본다. 황 화백은 마음껏 떠날 수 있는 여행을 꿈꾸며 30년 전 여행 스케치를 다시 들춰냈다. 캐나다에서 시작한 여정은 미국, 멕시코를 거쳐 페루, 칠레 등 중남미로 이어졌다. 30년 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행의 설렘은 언제나 똑같다.

'남도 오디세이 義路'가 향한 곳은 '녹차수도' 보성이다. 보성은 다향(茶鄉)이자 의향(義鄉)이며 예향(藝鄉)이다. 사계절 푸르른 녹차밭과 해수욕장센터, 제암산 자연휴양림 등 힐링 명소가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공동브랜드로 출시되는 '보성녹차'와 청년농부가 일구는 보성 싱싱농원 딸기도 맛볼 수 있는 보성으로 치유와 쉼, 맥방여행을 떠나본다.

가족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테마여행도 추천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호텔관광진흥법 '호텔스컴바인'이 예술여행의 최전선으로 발표한 '한국의 나폴리' 통영을 직접 다녀왔다.

이외에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정원' 두 번째 이야기 장성 필암서원, '광주 한바퀴'는 총장로와 동명로,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만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광주폴리를 만나본다. 2022년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KIA타이거즈 대표 포수 박동원과의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임윤찬 광주시향 협연...발레단 '돈키호테'

합창단 '요들송 합창음악', 오페라단 '카르멘' 선보여 극단 '한여름밤의 꿈'...창극단 '망월, 달빛의 노래' 소년소녀합창단, 영어오페라 '피노키오' 갈라콘서트

발레 '호두까기 인형', 연극 '한 여름밤의 꿈', 오페라 '투란도트', 피아니스트 임윤찬 협연공연-

올 하반기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8개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다양하면서도 한층 격조 높은 공연들로 시민들과 만난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하경원·이하 문예회관)은 최근 광주시립예술단 2022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홍석원)은 실내악 시리즈 II 'Quartett in G minor' (3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로 하반기 시작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리고 '현악 4중주',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를 선보이며 특별하게 광주시향 홍석원 예술감독이 피아노 연주자로 함께 한다.

다음 공연은 전남대 개교 70주년 기념 야외콘서트다. 오는 9월 5일 전남대 5·18광장에서 진행되며 바이올리니스트 이해경, 바리톤 김주택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비제 '카르멘 서곡',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8번' 등을 연주한다.

이어 선보이는 정기연주회 'prelude'는 오는 9월 17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가 협연자로 나선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리스트 '전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공연은 올해 반클라이브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함께하는 정기연주회 '베르벤: 윤이상'이다. 오는 10월 6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베르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이밖에 사무엘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를 연주한다.

이어 10월 20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오티움 콘서트 'Schumann's', 정기연주회 'Romantic' (11월 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오티움 콘서트 'Mythos' (12월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 공연이 펼쳐지며 올해 마지막 공연 'Symphonic Party' (12월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협연자로 올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라흐마니

노프 '교향적 무곡'을 들려준다.

시립발레단은 5년 만에 최고의 희극발레 '돈키호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슈투트가르트 부예술 감독이자 세계적인 안무가 크리스토프 노보그로츠키가 재안무를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어 12월 20-25일에는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한다. 김용걸 안무가만의 매력적인 네오클래식 안무 동작들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작품이다. 올해는 플라인 연출 등을 강조해 크리스마스 시즌 풍성한 동화발레를 선보인다. '호두까기 인형'은 달빛동맹 초청 공연으로 연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합창단(지휘자 김인재)은 야외공연과 색다른 합창 공연을 시도한다. 오는 8월 23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음악' 무대는 광주엔시안요텔 클럽이 출연해 흥겨운 요들송과 스위스 민속악기를 연주한다. 9월 1일과 3일은 '가을 길목에서 떠나는 합창여행'을 주제로 대중에게 익숙한 명곡들과 라이브 재주연주로 가을밤 낭만을 선사한다.

'가을 저편' (10월12일·빛고을시민문화관)에는 테너 윤병길과 빛고을댄서스의 협연으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한국교성곡 달의 춤·아! 대한민국' 공연은 탁계석의 시에 우효원이 곡을 붙인 '달의 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들과 함께 풀어낸 창작 칸타타다. 감성 소리꾼 고영렬이 협연자로 나선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규형)은 창작창극 '망월, 달빛의 노래' (11월 11-12일·빛고을시민문화관)를 공연한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아들, 애빠를 잃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송년 국악 한마당' (광주공연마루)은 올해 선보인 작품들 중 대표



김나세



임윤찬



고영렬

작품만을 엄선해 공연한다. 판소리, 창극, 무용, 타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국악관현악단(지휘자 한상일)은 '환경음악회: 초록빛 생기'를 오는 9월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한다. 환경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는 국민소리꾼 장사익이 출연해 환경과 관련된 곡을 들려준다. '송년음악회: 개세지개' (12월 15일 빛고을문화관)에는 전국의 국악 명인과 명창들을 초청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특별한 공연을 선사한다.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박주현)은 영어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10월 9일·광산문화예술회관)를 갈라 콘서트로 선보인다. 영어 오페라를 친근한 동화 '피노키오'를 주제 삼아 현대적인 리듬의 오페라 곡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12월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영어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전막 공연을 선사한다.

광주시립극단은 제 19회 정기공연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을 선보인다. 9월 15-17일, 22-24일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셰익스피어의 대표 낭만희극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올해 하반기 첫 공연으로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 (8월 13-14일, ACC예술극장 극장2)을 선보인다. 11월 26-27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를 공연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에스트로 지휘자 '김나세'의 지휘와 친절한 해설로 만나오는 오페라 공연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수성을 잃은 현대인들...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

최재영 작가 'Glam Boys' 전, 5일까지 예술의 거리 달정원

'가상 세계에서 만나는 작품'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2022 VIVA! 예술로'가 'NFT-메타버스 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5일까지 예술의 거리 달정원(동구 중앙로 210)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최재영 작가를 초대했다. 전시에서는 자연을 배경으로 아이의 천진한 미소가 어우러진 미디어 작품 및 디지털 프린트 작품 30여점과 화려한 배경 속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갤러리까지 다양한 NFT 콜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NFT 디지털아트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 디지털 작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작의 고유성과 저

작권을 보호해주고 예술계의 가치를 디지털화하는 미술 고유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 형태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최작가는 'Glam Boy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자연과 문명, 인간의 공존을 암시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속 작품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순수성을 잃은 어른들이 'Glam Boys'처럼 다시 빛나고 순수해지길 갈망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담은 작품들로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영국 런던예술대학



'Glam Boys'

(왼부터 아트 칼리지)를 졸업한 최작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등에서 26회의 개인전과 500여회의 단체전 및 국제 아트 페어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푸치니 코믹 오페라 '잔니 스키키'

강숙자 오페라라인 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단법인 강숙자 오페라라인 제32회 정기연주회가 2일~3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푸치니의 유일한 코믹 오페라 '잔니 스키키'다.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속 전쟁, 죽음 뒤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을 웃음으로 녹여낸 '잔니 스키키'는 블랙 코미디 작품.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일화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작가 조바키노 포르차노가 대본을 썼다.

푸치니의 아름다운 음악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오페라의 주인공인 잔니 스키키의 딸 라우레타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며 부르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광고 등에도 삽입돼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곡이다.

작품의 배경은 13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대부호 도나티의 죽음으로 한 데 모인 일가친척들은 그가 남긴 유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모든 유산은 수도원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그들은 거짓 유



언장을 만들기 위해 꽤 많은 잔니 스키키를 부른다. 잔니 스키키는 죽은 도나티를 연기하며 새로운 유언장을 쓰게 되는데 친척들에게는 조금씩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몽땅 자기 가로잔다.

강숙자 단장이 총감독을 맡고 연출은 양수연 한예중 외래교수, 오케스트라 지휘는 전진 나주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가 담당한다. 출연자는 잔니스키키 역의 김희열·박성훈, 라우레타역의 윤한나·임현진, 기타 역의 오지영·김혜원 등이며 김정규·진세한·정대현·류승민·이소·우지연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062-514-7090.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